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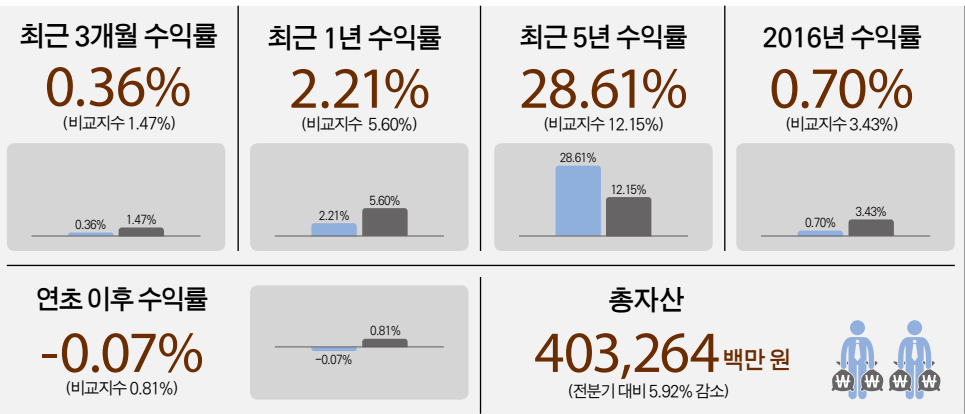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주식 편입비가 30% 이하인 채권혼합형 펀드입니다.

☆
기업의 본질적 내재 가치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
저위험 적정 수익을 추구합니다.

최초 설정일 | 2006.04.18 | 운용 기간 | 2016.10.18~2017.01.17



위 수익률은 가치투자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5등급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의 위험 등급

1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는 최근 결산일(2016년 4월 17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3.17%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 등급 체계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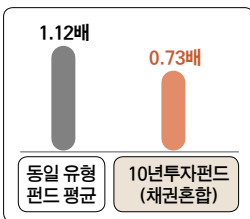
2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ER과 PB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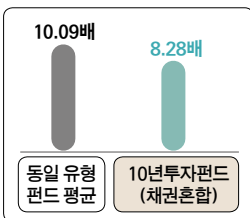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 = 주가 / 회계연도말 예상 순자산
 ※ PER = 주가 / 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 (최근 12개월 간 월말 평균 / 2015.12~2016.11)
 ※ 동일유형펀드 채권혼합 공모펀드(주식 등 위험 자산 편입비 평균 15~40%로 운용하는 국내 혼합형 펀드)

Vol.43
2016.10.18~
2017.01.17

Carpe diem, 오늘을 잡아라!

‘예상을 뛰어넘는’, ‘예상을 뒤엎는’ 등의 수식어가 일상적으로 보일 만큼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미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설부른 예측이 아닌 오늘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투자자로 투자자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장기가치투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이채원 CIO와 이승혁 자산운용3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 가치투자 이어갈 것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펀드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CIO 이채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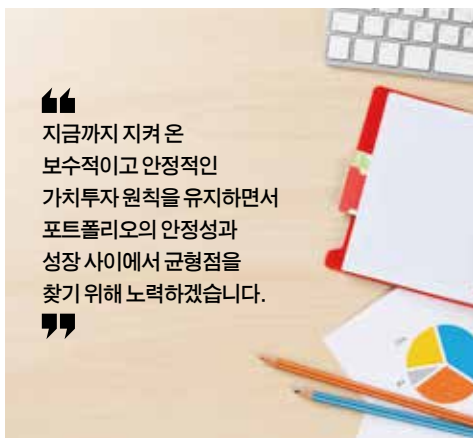
경기 민감 대형주 상승세에 중소형 가치주는 소외되었던 분기

이번 운용 기간 동안 주식시장은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일부 경기 민감 대형주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민감 업종 상승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수출 호조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더욱 강하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드 미사일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우려로 중소형 성장주를 대표했던 화장품 및 미디어 콘텐츠 업종의 주가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분기는 경기 민감 업종 상승세에 비해 내수 소비재의 부진이 더욱 눈에 띄는 기간이었습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경기 민감 업종보다는 경기 방어 및 내수 업종의 투자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어, 경기 민감 대형주 위주의 상승 시장에서 소외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위험, 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채권혼합형 펀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내수 업종의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비교지수 대비 낮은 성과에 그쳤습니다. 돌이켜보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만 중시하면서 유가 변동에 따른 수익률 제고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작년 한 해 이례적인 저유가 상황에서 산유국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제 유가의 저점 인식이 확산되었고, 유가에 민감한 조선·정유·건설 업종 등의 주가가 반등했는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금리 급등, 국내 금리도 이에 동조

다음으로 채권시장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 부진으로 2016년 3분기까지 낮은 수익률을 보이던 채권 금리는 4분기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미국 채 발행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국내 금리도 이에 동조하며 상승한 것입니다. 채권시장 약세가 계속되면서 금리는 최근 16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가치투자 원칙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경기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수출이 개선된 반면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내려앉으면서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경기 부진과 가계 부채 우려로 국내 기준 금리는 4분기에 다시 동결되었습니다.

안정적 운용 속에서 성장과의 균형점 찾기 시도

다음으로 주식 부문의 향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내수 시장의 여전한 정체,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에 따른 보복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등이 예상됩니다. 시장 상승에 비우호적인 대내외 변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지금까지 지켜온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가치투자 원칙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포트폴리오의 안정과 성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다 좋은

성과를 투자자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금리 변동에 대비한 안정적 채권 운용

채권 부문을 살펴보면, 향후 미국의 통화 긴축정책과 국내의 통화 완화정책이 상충하면서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는 시장 금리에 대한 민감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저평가된 특수채와 회사채를 편입해 안정적 이자 수익을 추구하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CIO 이채원
자산운용3본부장 이승혁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펀드**입니다.
- 펀드 재산의 30% 이하를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채권혼합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의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흥국증권, BN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기타 |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펀드(채권혼합)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	56288
클래스 A	AE273
클래스 C	AE245
클래스 C-P	AH290
클래스 S	AP748
클래스 C-W	AR355
클래스 C-E	AS482
클래스 A-E	BG296
클래스 C-Pe	BG300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KEB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티스

- **공지 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KE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친절한 밸류 탐정의 펀드, 잘 알려드립니다!

가치투자자와 배당주 투자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안 중 하나인 배당주 투자. 가치투자자 관점에서 배당주 투자는 어떤 의미인지, 가치투자자와 배당주 투자의 궁합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1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각광받는 배당주 투자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의 대주주와 한 배를 타고 똑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시장 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매년 일정한 현금을 꼬박꼬박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주 투자의 매력이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주 투자가 각광받는 또 다른 이유로 시장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배당주가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익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자체가 저성장 성숙 단계에 접어들고,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답답한 장세를 보이면서 배당주 투자가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 혜택 등에 영향을 받아 기업의 배당에 대한 관점과 정책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 가치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주 투자의 매력

그렇다면 가치투자자에게 배당주 투자란 어떤 의미일까요? 배당주 투자는 일단 연말이 되면 일정한 현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정한 현금 수입은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탄탄한 기반입니다. 안정적 투자를 지향하는 가치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또 기업의 배당 성향으로 그 기업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즉 꾸준한 배당 성향을 보여준다는 것은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이고 기복 없이 꾸준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 연구에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기업의 이익 지속성이 높았음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3 가치투자자와 배당주 투자

그런데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배당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은 이미 주가가 높은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치투자에서 추구하는 배당주 투자는 배당을 꾸준히 할 뿐 아니라 주가가 싼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배당 성향이 꾸준히 유지되면서 주가가 싼 기업은 대부분 사양 산업군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산업 자체는 기울어가고 있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사업 기반이 안정적인 기업이 가치투자 대상입니다. 이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면서 꾸준히 수익률을 높여가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배당주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는 매년 받는 배당을 재투자해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높여가는 데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복리 수익 확보를 꾀하는 가치투자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배당주 투자는 꾸준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치투자자와 배당주 투자는 궁합이 잘 맞는 오랜 단짝 같은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자! 뉴스 스크랩북

2017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

미국의 새 행정부 등장, 금리 인상, 환율과 유가의 변동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요인이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2017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등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료 산업연구원, '2017년 거시경제 전망'



01

세계경제와 유가, 환율의 흐름

2017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작년보다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등장, 금리 인상 속도와 시기, 브렉시트 여파 등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주목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비

교적 꾸준하고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나, 중국은 구조 전환 정책이 유지되면서 성장 둔화 추이가 완만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유가는 세계경제의 소폭 개선과 OPEC의 감산 합의 등으로 2017년 중 배럴당 평균 50달러 내외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중 비교적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지만,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1,150원대)에 예상됩니다.

02

국내 경제 전망

1 경제 성장 ▶ 2017년 국내 경제는 2016년보다는 약간 낮은 2.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성장을 주도한 건설투자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는 반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2 민간 소비 ▶ 저성장과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도 민간 소비 상승세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구조 조정 여파, 소득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16년보다 낮은 2.1% 내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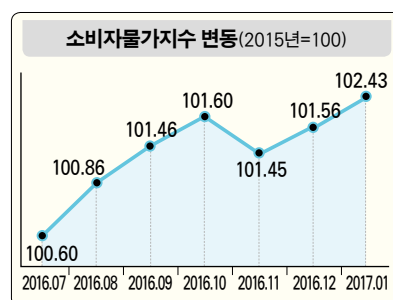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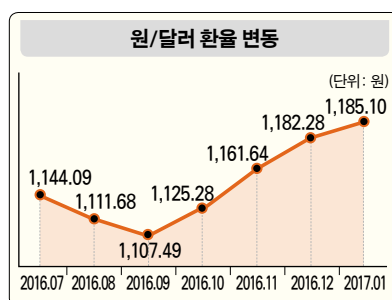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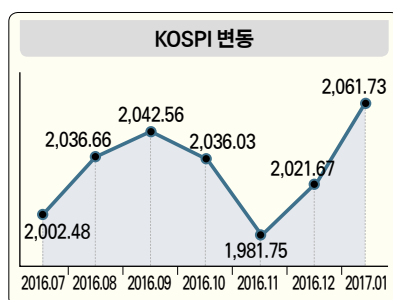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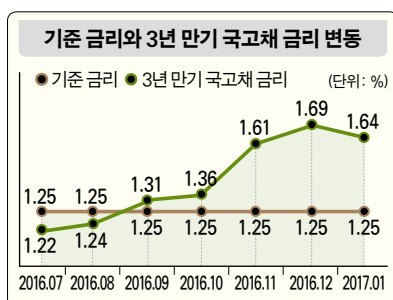
3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 2017년 설비 투자는 수출 부진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어 지난해와 달리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구조 조정 여파로 2.0% 내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진했던 설비 투자와 달리 건설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 중심의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었지만 2017년에는 이러한 성장세가 꺾이면서 성장률이 2.9% 내외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4 수출입 ▶ 수출의 경우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2017년에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7년 수출은 2.1%, 수입은 3.6% 내외 증가하고 무역 흑자 규모는 약 8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2016년			2017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 GDP	3.0	2.5	2.7	2.4	2.7	2.5
민간 소비	2.7	2.3	2.5	2.0	2.3	2.1
건설투자	10.3	9.4	9.8	3.2	2.6	2.9
설비투자	-3.6	-4.0	-3.8	1.1	3.0	2.0
수출	-10.2	-3.6	-6.9	1.2	3.0	2.1
수입	-13.2	-3.1	-8.2	4.4	2.9	3.6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6.07~2017.01)



·자료 한국은행(연월 중 평균 자료)